당장 확인될 수 있는 변화

(마태복음 5:5~7)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당장 확인될 수 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당장 확인될 수 있는 변화'
목회를 할 때에 목사님들의 고민은 교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 스스로도 이론적으로는 변해야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경험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십자가 생활화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와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를 당장 확인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대화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고 생각해봅니다. 삶이 죽음으로 변했으니 가장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 셈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와 닮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4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게 됨과 애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수 없이 가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는 부자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통함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마음을 다 쓸 만큼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땅과 하늘이라는 격차가 있으니 그로부터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절의 "나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포함시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표현해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에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 바로 당장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저를 접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를 잘 아는 집사람은 저의 강퍅함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유함이란 따듯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보면 어떤 저항이나 유보 없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이 땅을 향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듯이 마음이 한 푼도 없으니 세상에 대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대해 가난해진 이유는 하늘을 향해 모든 마음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 더 부자가 되고자하는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육체가 있는 한 삶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내 몸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형성되고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금방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나를 둘러싼 세상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이든 바다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게 되었듯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관계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땅에 대해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 스위치를 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보니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관계나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허락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곧 받아들임입니다. 마음이 이 땅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땅에서 주어진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원망이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

들은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생기는 즉각적 변화로써의 온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쁨은 땅에 대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을 때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한편 범사에 감사는 땅에 대해 온유한 마음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비록 배우자의 행동이 언짢게 여겨질 때에도 배우자의 행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한다고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배우자든 자녀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면박을 주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마음에 배우자나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나타나는 세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함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화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더는 세상에 대해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애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치 차명계좌와도 같습니다. 분명 내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이루어진 일 중에 내가 마음 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어난 일들만이 내 명의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애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차명계좌와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날 때에는 출애굽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날 때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

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의 명의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6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란 정의나 공의를 의미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유함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에 주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이 온유함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는 나에게서 표현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의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작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천 수, 만 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스위치가 꺼지고 하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온유함으로써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삶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 인격으로써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며 의지를 따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는 말에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바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에 감정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 애통하며 온유함을 통해 삶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의는 하나님 속에 있는 뜻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

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 삼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의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 존재로써 삶에서 입장을 표명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치며 달려갑니다.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고 돈이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에 따라 감정이 생겨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삼아 움직이시기를 굶주려하고 목말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 성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고백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의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양식이란 바로 수가 성 여인이 굶주려하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배부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 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 삼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7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긍휼히 여

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긍휼함의 힘은 바로 하늘과 땅의 격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땅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직 하나님으로 부자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애통하듯이 하나님을 못 벌어 애통한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 땅에 대해서 부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마음을 부자처럼 쓰면서 살아가고 세상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애통합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온유함이 없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불만이 생겨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불철주야로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비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TV를 보실 때에 나오는 사건 사고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잘되면 좋아하지만 안 되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오직 자신의 어쭙잖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로부터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십자가 복음을 모릅니다. 집에서 날마다 사사건건 짜증을 부리고 시비를 걸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마음으로 보면 그런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애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에 행복도 함께 생겨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행복이 생기는 이유는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에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좋은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늘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땅을 향해있는 동안 결코 하나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늘을 향해 애통하는 자가 된다면 온유함과 긍휼히 여김이 생겨납니다. 땅만 아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늘을 알고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처럼 하늘을 향해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곧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즉각적인 변화들을 확인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